

<전통과 기억 Tradition and Memory>

부산을 역사로 이해하기



최선아, 밖에서, 2012



이인미, 부산, 영도다리 #11, 2010

수업개요 : 최선아와 이인미, 두 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부산의 급속한 발전 현상과 부산의 역사를 알아본다. 학생들이 이들의 작품을 보고 탐구함으로써 부산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
대상연령 : 13 - 15세

키 워 드 : 부산, 도시, 역사, 유산, 개발

학습주제 : 우리가 부산의 역사를 알게 되면 부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?

배 경 : 최선아 작가는 이번 부산비엔날레에 부산의 변화를 주제에 관한 작품을 제시한다. 작가가 주목하는 점은 첫째, 도시 곳곳에서 관찰되는 주택용 건물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점 둘째, 거주지와 상업지의 혼성적인 발전이 뚜렷한 해운대지역과 타 지역의 비교 셋째, 도시적 생활 패턴 아래에서 큰 변화를 겪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맺기이다.

이인미 작가도 마찬가지이다. 작가는 과거의 흔적이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부산에서 작업을 해왔다. 작가는

우리로 하여금 사진을 통해 도시의 재건축, 재개발, 뉴타운 등 변화하는 도시 부산을 바라보게 이끈다.

부산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. 우리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부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영도다리 사진을 보며,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배울 수 있다. 올바른 부산 역사의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관점에서 부산을 알 수 있게 한다. 우리는 부산의 변화를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.

수업 과정

<p>도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산의 "Old Town"과 "New Town" 알아보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부산의 "Old Town" (오래된 지구)과 "New Town" (새로운 지구)은 어디 있나요? -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나요? ○ 부산시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 알아보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부산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있나요? -환경과 유산의 관계를 탐색해 보세요. ○ 부산의 역사를 알아보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부산의 역사적인 장소는 어디 인가요? -그 곳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나요? 어떤 것들이 있나요? 	<p>Tips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부산의 "Old Town" 예: 중양동, 보수동 책방골목 등. - 부산의 "New Town" 예: 해운대 신시가지, 센텀시티 등. - 영도다리의 역사, 보수동 책방골목의 역사 등.
<p>전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품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학생들은 예술 작품을 탐구하며 자신의 해석을 발전시키도록 지도한다. -각 학생들이 비판 없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서로 나누도록 한다. -위에 언급된 배경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해석을 연결한다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>생각의 정원 Garden of Thinking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작품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? -최선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부산의 얼굴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였나요? -이인미 작가의 작품을 볼 때 부산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? -작품에서 어떤 역사적인 장소를 보았나요? -부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 -그 역사적인 장소가 부산에 보존하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나요? -영도다리나 보수동 책방골목이 옛날에는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? -중양동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아 볼 수 있나요? -그 역사적인 장소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?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상하고 토론하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60년 전에 부산에 살고 있는 자신 상상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한국 전쟁 때 어디에 살았나요? -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나요? 	

	<p>-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땠나요? -그 당시의 삶의 방식을 좋아하였나요?</p> <p>2. 지금 자기 사는 곳 이야기 -현재 사는 곳을 만족하나요? -지금의 자연과 환경 상태가 60년 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? -오늘날의 도시개발에 대해 염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? -역사적인 장소나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나요?</p> <p>3. 60년 후에 부산에 살고 있는 자기 상상하기 -여전히 같은 곳에 살고 있을까요? -삶의 방식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? -환경 상태는 어떤가요? -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이 있나요? -역사적인 장소들과 유산이 잘 보존되었나요?</p>	<p>Tip -1950-53 한국 전쟁</p>
<p>정리</p>	<p>○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, 도시 개발과 더불어 역사적인 장소와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학생들에게 브리핑하게 한다.</p> <p>○ 부산의 역사를 배우면서, 우리는 부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.</p>	

※ 전시회 방문 후, 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안의 '역사와 변화'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고 싶은 표현매체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보도록 한다. (그림 그리기, 모델 만들기, 비디오 만들기 등)

☞ 더 생각해보기

<사진>

김상돈, 은하수, 2012

김상돈 작가는 작업을 할 때 부산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, 즉 '쌈 쌍둥이, 바람, 불'을 떠올려 왔다고 했다. 부산의 상반된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들을 찍은 사진 작품이다. 작가는 지금은 철수한 하야리아 미군주둔부대의 벽면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몇 채의 집들, 미군부대와 국제시장 사이에서 부대 폐기물을 유통하여 자생 경제를 꾸린 개금동 새마을과 같은 상징적 장소, 그 뿐만 아니라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.